

드라마 「궁(宮)」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 의상에 관한 연구

- 여주인공 의상을 중심으로 -

변미연⁺ · 김민지* · 이인성**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A Study on Fusion Style Costume in TV Drama 「Gung(Palace)」

- Focused on Heroine's Costume -

Miyeon Byun⁺ · Minji Kim* · Inseong Lee**

Ph. D. Course,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12. 1 투고)

ABSTRACT

Being called 'the period of diversity', the 21st century is taking on a new aspec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ere a certain phenomenon of a specific area was prescribed as one representative icon of a period. In particular, the globalization culture acted as the catalyst to accept such diversity and it appeared as a new culture code, 'fusion' throughout society and culture. Especially, unlike two-hour movies, the recent drama 「Gung」 showed various fusion style costume over a period of three months and created a sensation of fusion style costume.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fusion style costume by selecting the TV drama 「Gung」, which was on the air in 2006. Though various studies on fusion style costume, which is becoming a new culture code, have been conduc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s time to conduct a new study through a popular TV drama.

Based on preceding studies on fusion style, the elements of fusion style were analyzed by capturing the most frequently exposed heroine's costume, and new design development introducing fusion elements was attempted for empirical studi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fusion trend is a culture code which already spread to the public and is shown in the fashion in various ways.

Second, the drama 「Gung」 is commented as a new dram which introduced the fusion style costume into Korea through a modern version of constitutional monarchy and is commented as a medium which created an interest in the fusion costume among the public as well.

Third, new trend elements of the fusion style could be derived through empirical studies by

design development.

Key words: fusion(퓨전), costume(복식), culture code(문화 코드), globalization(세계화), drama 「Gung」(드라마 「궁」)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21세기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나타나며 어느 특정 분야에서 나타난 현상을 그 시대의 대표 아이콘으로 규정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화는 이러한 다양성의 공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곧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퓨전(fusion)이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패션분야 또한 다양한 퓨전 요소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스타일을 출현시키고 있다. 세기말부터 급속도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필하고 있는 퓨전 의상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요지 야마모토(Yoji Yamamoto)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컬렉션에 발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왔다. 이러한 퓨전 의상은 대중매체와의 결합으로 전 세계 패션 리더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단지, 대중매체가 세계패션의 흐름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영화, 드라마 등 시각적 영상물 등을 통해 새로운 패션을 제시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코드로 대중들에게 한발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006년 국내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궁(宮)」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퓨전 드라마'라는 타이틀로 퓨전 의상을 선보였던 대표적인 영상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작품의 시대적 배경 자체가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는 가상의 현실을 현대화 시켰기에 퓨전 스타일 의상이 매우 적합하게 등장할 수 있었으며, 여주인공 캐릭터 설정이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여고생의 젊은 황태자비 모습으로 기존의 무거운 사극 의상과는 다른 퓨전 스타일 의상을 착용하여

등장하는 등 시각적인 유희 및 퓨전 의상에 관한 새로운 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드라마 「궁」은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었던 드라마로 불특정 다수에게 '퓨전'이라는 한 현상을 각인시키는 커다란 계기로 작용하였기에 퓨전 의상에 관한 연구대상으로 그 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학계를 통한 퓨전 스타일 의상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정삼호(2002), 김소라(2003)의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드와 컬렉션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을 분석하였으며, 김후란·은영자(2003), 박수현(2005)은 패션이라는 넓은 카테고리 속의 퓨전스타일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퓨전 컬렉션 혹은 패션과 퓨전이라는 넓은 의미의 고찰과 이에 관한 상관관계연구가 주를 이루었기에 연구자는 이와는 다른 대중의 접근성이 높은 드라마를 통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대중들에게 퓨전 의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증대와 함께 한류의 배경 속에 한국미를 표출할 수 있는 의상 디자인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각종 매체의 경로를 통해 활발한 퓨전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현 추세에 있어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드라마를 통한 연구는 대중들에게 퓨전이라는 패션의 트렌드를 인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드라마 「궁」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퓨전 스타일 의상에 관한 연구로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통해 퓨전 스타일의 개념 및 발생 배경, 현황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으며, 황인뢰 감독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드라마 「궁」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전개하였다. 또한 드라마 「궁」에 등장하였던 여주인공의 퓨전 의상과

‘한류, 한복을 입다’ 전에 전시되었던 본 드라마의 여주인공 의상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내포하는 작품 10벌을 1차 선정하였으며, 선정의 객관화를 위해 의상학 관련학문을 전공한 패션 전문가 집단 20인의 분류에 기초한 여주인공인 황태자비의 퓨전 스타일 의상 총 6벌을 최종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도출된 퓨전 요소를 표출하는 세 벌의 의상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퓨전 스타일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퓨전 스타일의 개념 및 발생 배경

(1) 퓨전 스타일의 개념

퓨전(fusion)이란 ‘fuse’에서 파생된 말로 ‘융해, 융해, 통합, 융합’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며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즉,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요소들이 만나 새롭게 재조합되고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냄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합주의(syncretism)¹⁾, 하이브리드(hybrid)²⁾, 크로스오버(cross-over)³⁾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⁴⁾

퓨전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만나 ‘1+1=2’라는 단순한 합의 개념이 아니라 ‘1+1=1’이라는 새로운 문화 창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개념과도 상통한다. 이것은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제3의 문화를 일컫는 이중교배에 의한 진화인 셈이다.⁵⁾ 이렇듯 기존의 모티브에 의해 다양한 형태를 창출해 내는 현상을 일컫는 퓨전은 세기말적 분위기와 가치관의 혼란,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990년대 이후 패션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 퓨전 스타일의 발생 배경

문화는 인간의 지식과 신념, 행동 등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양식을 뜻하며 그 요소로는 언어,

관념, 신앙, 관습, 규범, 제도, 기술, 예술, 의례 등을 포괄한다.⁶⁾ 이러한 요소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래되면서 동시대의 여러 사회 유산들이 합하여지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이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화에 다른 문화의 요소들이 유입되거나 섞이는 경우는 인류 문명 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타국의 문화 중 유익한 부분을 자국에 받아들여 토착화시키는 일 또한 계속되어 왔다. 이렇듯 인류 문명 이후 계속되어 온 문화의 충돌·유입·뒤섞임이 21세기에 들어 문화의 융해·융합을 의미하는 퓨전 문화로 발전·재확립된 배경은 20세기 후반 이후 도래한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심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시작된 이후 건축 양식에서부터 미술, 문학, 음악, 영화, 연극에 이르기까지 전 예술분야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점차 시대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하나의 대중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 1995)에 따르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경향은 기존에 존재하는 대중문화와 고급문화간의 경계, 장르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형식간의 절충과 다원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이전에 주류라 일컬어지는 서양 모더니즘의 문화, 상위문화, 하위문화, 동양의 선 문화 등이 서로 충돌하여 뒤섞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너무 복잡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된 21세기 인들은 많은 요소들이 복합되어 새롭게 재창조되고 변형된 것들에 자연스레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기회가 세분화되고 다양한 감수성의 혼재 양상을 나타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대와 두려움의 양극단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단순한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도움을 주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의 문화적인 요소들의 조합·충돌·뒤섞임을 넘어서 더욱 심화되고 성숙된 퓨전

스타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⁸⁾

2) 퓨전 스타일 현황

(1) 음악

음악에서의 퓨전은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에 의해 시작된 재즈에 록이 결합한 '퓨전 재즈(Fusion Jazz)'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70년대 들어서 장르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음악들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음악의 지평을 넓혔으며, 현대에는 신세대의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전자 사운드를 정통 재즈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윤도현 밴드의 록과 국악을 결합한 월드킥 웅원가, 임형주의 팝과 오페라를 결합한 팝페라 등 다양한 음악의 장르가 결합되어 대중 속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음식

음식에서의 퓨전은 재료와 방법이 모호한 음식을 의미하며 누벨 퀴진(Nouvelle Cuisine), 멀티 컬처 푸드(Multi-culture Food), 크로스 오버 푸드(Cross-over Food)라고도 한다.¹⁰⁾ 역사적 시작점은 다양한 설이 존재하나 1980년대 미국 LA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부터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적인 취향의 문화가 서서히 대중에게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동서양의 음식 조리법 중 각각의 장점만을 뽑아 만들어 낸 새로운 음식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퓨전 음식의 예로 '석가탑 모양의 아이스크림', '과일초밥', '라이스 버거' 등을 들 수 있으며, 조리 기법 뿐만 아니라 식재료,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요소 결합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영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호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대중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장르인 퓨전 영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로 다른 영화장르를 융합한 대표적인 예로 「매트릭스 II(2003)」를 들 수 있는데, 테크노 음악의 배경 속에 동양의 정제되고 계산된 액션과 서양스케일의 액션이 결합된 할리우드의 영화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

되어오고 있다. 멜로와 판타지를 섞어 멜로 판타지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었던 「은행나무 침대(1996)」, 코믹 잔혹극 「조용한 가족(1998)」, 멜로와 공포, 스릴러를 결합한 「텔 미 썸씽(1999)」, 「해피엔드(1999)」, 「송어(1999)」등의 퓨전 스타일 영화는 국내 영화계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았다.¹¹⁾

(4) 패션

세기말과 밀레니엄을 겪고 급변하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패션영역에서도 기존에 존재하는 개념들이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되어 새로운 느낌으로 재창조 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의미하는 Genderless, 과거와 미래의 조화를 의미하는 Timeless,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와의 조화를 의미하는 Cultureless 등 현대 사회의 트렌드에 따라 무수히 변화되어 재탄생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퓨전은 동양요소와 서양의 요소를 결합한 이질적인 패션코드로 Zen style의 퓨전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와 과학주의의 한계점으로 관심의 중심을 '인간 내면'에서부터 찾으려는 노력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곧 동양에 대한 관심의 표출로 이어져 현대패션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기모노, 중국의 차이나 칼라와 자수, 인도의 사리 등 동양의 전통복식들이 현대복식과 접목되어 훨씬 다양한 스타일이 창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믹스를 퓨전 패션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드라마 「궁」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드라마 「궁」

2006년 1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방송된 MBC 드라마 「궁」은 박소희의 만화 「궁」을 원작으로 한 황인뢰 감독의 퓨전 드라마이다. 대한민국이 임현군 주체 국가라는 설정에서 출발한 본 작은 대한민국의 황태자 이신(주지훈), 평범한 여고생 황태자비 신채경(윤은혜), 평화를 원하는 황위계승 서열 2위 이율(김정훈) 등 세 명의 젊은이를 중심으로 극을 전개해 나간다. 클래식과 모던이 만나는 독특한 배경으로 신과 채경의 만남을 통해 19세기 아날로그

세계와 21세기 디지털 세계의 융합을 찾아볼 수 있다.

2) 등장인물 별 의상

(1) 황태자비(윤은혜)

평범한 여고생이자 황태자비인 채경은 황태자 신에 대한 고독한 연민의 감정과 의성군 율에 대한 이성의 감정을 혼재하여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는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다. 자기만의 순수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타고난 낙천적 성품과 씩씩함으로 주변과 궁의 모든 인물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존경받는 황태자비로 스스로 거듭나게 된다.

학교 교복에서부터 전통 한복, 퓨전 한복, 드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황태자비는 드라마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동·서양 믹스 스타일의 퓨전 의상을 입음으로써 19세기의 궁과 21세기의 현대의 만남을 의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복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퓨전 드레스는 전통적인 한복선에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한 스타일로 황태자비다운 우아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다.

(2) 황태자(주지훈)

지성과 외모를 갖춘 황태자 신은 엄격한 규율과 개인의 사생활이 없는 궁 생활에 염증을 느끼며 가족, 사랑, 우정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닫힌 생활

속에서의 일탈을 꿈꾼다. 말괄량이 황태자비 채경을 길들이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였던 효린과의 삼각구도가 나타나며, 그런 가운데 황위 계승 서열 2위인 율과는 채경과 황위를 두고 의도치 않게 대립을 하게 된다.

황태자비와 달리 퓨전 의상은 입지 않았으나, 최근 남성복 트렌드로 대두되어지는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¹²⁾,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¹³⁾, 위버섹슈얼(Ubersexual)¹⁴⁾ 등의 요소를 반영한 의상을 주로 착용하고 있다.

한편 황태자 역할 수행 시에는 근대 러시아와 유럽 황실의 제복을 응용한 군관복을 입어 황위 계승자의 위엄성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는 황실 어른들이 이뤄내지 못했던 황실의 개혁과 변화를 근대 제정일체의 복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황금 바탕 위에 붉은 자수가 이러한 변화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의성군(김정훈)

은순한 성품과 지적인 분위기로 신과는 다른 캐릭터를 가진 율은 잃어버린 황위를 되찾기 위한 야망을 지닌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어쩔 수 없이 신과 라이벌이 된다. 명랑하고 낙천적인 채경에게 호감을 키워가던 중 돌아가신 선황의 정혼 약속이



〈그림 1〉 황태자비①, DVD 캡처



〈그림 2〉 황태자비②, DVD 캡처



〈그림 3〉 황태자비③, DVD 캡처



〈그림 4〉 황태자㉠, DVD 캡처



〈그림 5〉 황태자㉡, DVD 캡처



〈그림 6〉 의성군㉠, DVD 캡처

신과 울, 두 명의 손자 중 황위를 이을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권력의 길을 찾게 된다.

황태자 신과 달리 편안하고 자유로운 캐주얼 의상을 주로 착용하였으나,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제복과 함께 서양식 슈트를 착용 하였다.

이밖에도 황실의 어른인 황제와 황후 민씨, 황태후 박씨는 전통 한복 의상을 착용하여 황실의 위엄을 재정립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황태자의 누이인 혜명 공주만이 평상복을 착용하여 변화되어 가는 궁의 모습과 세대 간 사고의 차이를 극 중 의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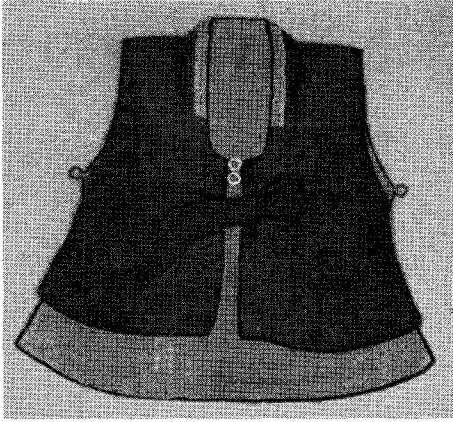
Ⅲ. 여주인공의 퓨전 스타일 의상 분석

Ⅲ장에서는 퓨전 스타일 의상 분석을 위해 드라마 「궁」속 여주인공의 한국적 이미지를 내포한 10벌의 의상을 캡처한 후, 의상학 관련학문을 전공한 패션전문가 집단 20인의 면접조사 방법을 통해 최종 6벌을 선정하여, '퓨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요소에 관한 그룹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형적인 미적 특징을 분류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인 실루엣, 소재 및 색상, 액세서리로 세분화 하여 여주인공의 퓨전 스타일 의상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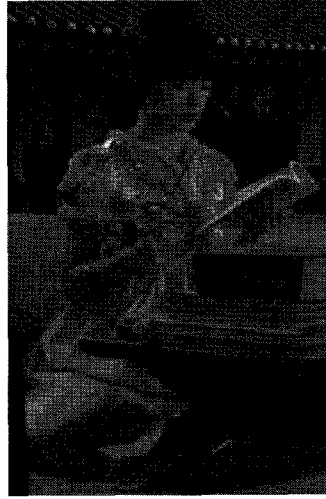
1. 실루엣

자연과의 조화와 여유, 풍류를 즐겼던 우리 민족은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완만한 곡선을 좋아하였다. 이러한 자연적인 형태는 의상, 생활용품, 건축물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며 한국의 전통적 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복에서의 도련, 배래, 버선 등에 도입된 곡선은 심미적 욕구의 표현으로 곡선을 강조하기 위해 바느질선 가장자리에 검정색의 가는 선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복의 아름다운 선은 직선과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유연한 선의 흐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한복선이 만들어내는 큰 틀은 인(人)자 모양의 A라인으로 곡선과 함께 서로 반대되며 표출되는 것이다.¹⁵⁾ 이러한 한국의 선은 중국이나 일본의 그것처럼 말끔하거나 인공적인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응에 의해 만들어진 평범하지만 멋의 깊이를 간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드라마 「궁」에서도 이러한 한국적인 선의 형태를 응용한 퓨전 의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배자에서 나타나는 곡선미를 응용한 형태의 퓨전 의상이다. 상의는 몸에 붙고 하의는 볼륨감 있는 치마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 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루엣은 〈그림 9〉에서도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전통배자, 담임복식미술관, p. 169.



〈그림 8〉 황태자비④, DVD 캡처



〈그림 9〉 황태자비⑤, DVD 캡처

치마 가장자리의 직선라인이 불규칙적인 주름을 통해 곡선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양의 퍼프소매와의 결합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고리의 여밈을 작은 끈으로만 고정하여 시각적인 여유로움과 외부에 대한 개방성을 통해 자연미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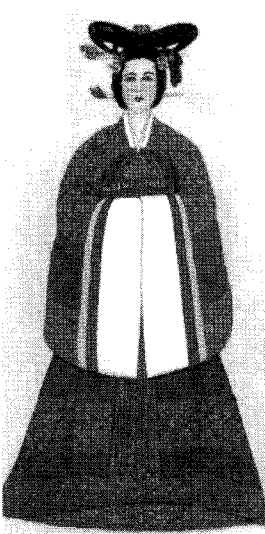
2. 소재 및 색상

각 나라마다 고유의 전통 소재를 사용하여 문화 소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복식의 재료로 삼베, 모시, 무명, 명주 등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소재를 애용하여 왔다. 이러한 천연소재들은 원사와 직조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재질감을 나타내며 그 자체의 소재에 있어 각각의 독특한 멋을 표현한다. 특히 우리 전통 복식은 형태의 변화가 많지 않기에 소재에서 나타나는 다양함과 아름다움이 복식 형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한국 전통 복식은 한국의 색과 어우러져 민족 고유의 상징성이 부가되었다. 청(靑), 적(赤), 황(黃), 흑(黑), 백(白)으로 구성되는 화려하고 강렬한 오방색은 즐거움과 화려함을 나타내면서 길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명절 때 입는 의복이나 어린아

이, 기생들의 옷에 이르기 까지 화려한 색채감정의 표출과 원색조화의 극치를 볼 수 있다. 특히 적색은 양(陽)의 색으로 청, 흑, 백 등 차가운 계열인 음(陰)의 색과 함께 코디네이션 되어왔다. 새색시가 적색 치마에 청색의 저고리를 입어오는 전통도 이러한 음양의 조화와 색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¹⁶⁾

본 챕터에 분류된 작품들은 섬세하고 정교한 고급직물인 명주소재와 한국적 색채가 짙은 레드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와 함께 전통 금박장식의 퓨전이 표출되고 있다. 〈그림 11〉의 의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대표적인 작품으로, 네 층으로 이루어진 하의와 블랙의 상의를 금박의 허리장식이 연결해 주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 한복에서만 금박장식을 볼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어버린 본 의상은 〈그림 12〉에서도 여과 없이 잘 드러나고 있다. 대란 단에 장식되던 화려한 금박은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진 황태자비의 무릎 선에 장식되어 퓨전의 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급 소재인 명주를 활용하여 황실의 권위와 위엄을 유지하였으며 짧은 치마 길이로 짧은 감각을 표현하였다. 위의 작품은 이러한 상반된 양상을 한 스타일로 표출하면서 변화하는 궁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오방색을 활용한 전통 한복, 한국복식사, p. 4.



〈그림 11〉 황태자비⑥, DVD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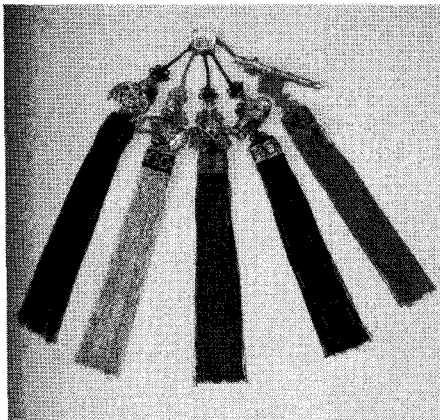


〈그림 12〉 황태자비⑦, DVD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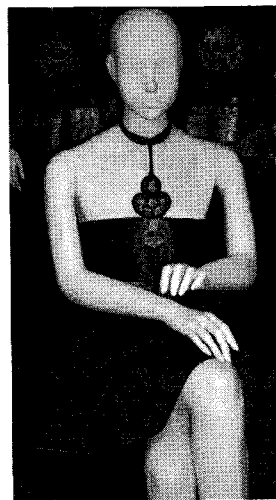
3. 액세서리

한국 여류세계에서 궁중은 물론 상류사회와 평민에 이르기 까지 널리 애용된 장식물은 노리개이다. 노리개란 여성의 몸치장으로 한복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 등에 다는 패물을 말한다. 「고려도경(高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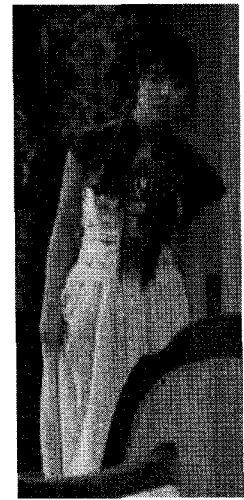
圖經)」¹⁷⁾에는 고려시대 귀부인들이 허리띠에 금탁(金鐸)¹⁸⁾을 찻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후기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자 허리띠에만 찻던 것을 옷고름에도 찻다고 한다. 그 후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옷고름에 달았으며 국가의 궁중의식이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간단한 것은 일상생활에도 달아 그 활용범



〈그림 13〉 한국 전통 노리개, 담압복식미술관, p. 101.



〈그림 14〉 황태자비⑧, DVD 캡처



〈그림 15〉 황태자비⑨, DVD 캡처

위가 넓었다.

노리개는 외형상 섬세하고 다채로우며 호화로운 장식성을 보이나, 정신적으로는 부귀다남(富貴多男), 불로장생(不老長生), 백사여의(白事如意)¹⁹ 등 시대적인 행복관을 바탕으로 한 여인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그림 14>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는 계속 연결되어 나타난다. 전통한복 소재를 활용한 원피스 드레스와 노리개를 코디네이션 하여 장식성을 부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슴에 부착하였던 노리개 위치의 고정 관념을 버리고, 네크라인에 목걸이 기능으로 장식하

여 액세서리를 통한 한국적 아이템의 다양한 변신의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5>의 원피스 드레스와 망토가 결합된 서양 스타일 코디네이션에서도 목걸이 노리개의 응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액세서리는 위치 착장의 변화를 통해 극중 발랄한 여고생의 재치 있는 성격이 드러나는 복선의 아이템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라마 「궁」에 나타난 여주인공의 퓨전 의상은 한국적 요소를 기본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그 세부적인 요소를 가시화 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도출된 퓨전적 요소

	퓨전적 요소	관계	퓨전 의상
실루엣	한복선이 만들어 내는 배래선 치마폭이 만들어 내는 인(人)을 이루는 직선		
소재 및 색상	전통 고급소재인 명주 금박과의 퓨전		
액세서리	노리개를 이용한 코디네이션		

IV. 디자인 개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라마 「궁」의 여주인공은 다양한 퓨전 의상을 착용하여 극중 여고생의 발랄한 이미지와 황실의 황태자비로서의 이미지를 동시에 부각시키며 TV라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였다. 대중들은 드라마 속 황태자비의 의상으로 한국미의 아름다움을 인지하였으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여주인공의 의상분석을 통해 퓨전 요소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IV장에서는 한류의 세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기를 고려하여 도출된 퓨전 요소를 모티브로 세벌의 작품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컨셉

본 작품의 전체 컨셉은 자줏빛 구름 즉, 성스러운 구름을 뜻하는 '紫雲(자운)'으로 한국과 서양의미를 결합한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퓨전 의상을 위한 이미지를 설정하였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파티 문화의 확산으로 드레스가 일반인들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에 한국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파티 웨어 디자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의상으로 컨셉을 표출하였다.

2. 색상

오방색을 중심으로 레드, 골드, 옐로우, 블랙 등을 메인 색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각적인 화려함을 위해 톤온톤의 그라데이션 색상 및 금박을 활용한 빛의 색을 표현하였다.

3. 소재

한국적인 고급스러움을 가장 잘 드러내었던 소재인 명주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연회를 위한 드레스 세벌 모두 실크를 주요 소재로 전개하였으며 진, 동양자수, 금박 등을 통해 퓨전 의상 특유의 소재 믹스매치를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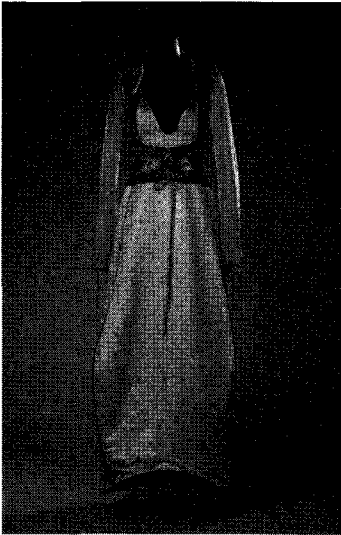
4. 디자인 제시

1) 清香(청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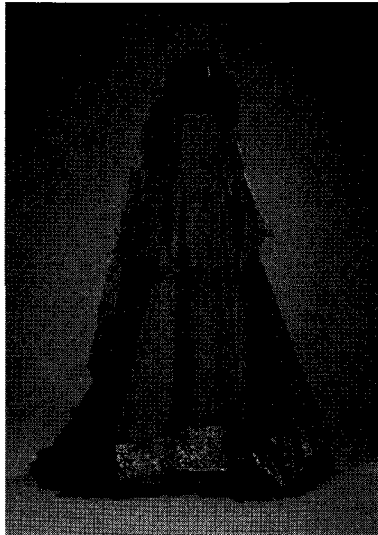
'깨끗하고 맑은 향기'라는 의미를 내포한 본 작품은 동양자수와 진의 결합이라는 이질적인 소재의 믹스매치를 통해 퓨전 의상의 해학을 이끌어내었다. 실크, 벨벳을 소재로 한 드레스 위에 서양의 코르셋을 응용한 허리장식과 볼레로 아이템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능미와 고혹미를 동시에 표출하는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표 2〉 작품 디자인 계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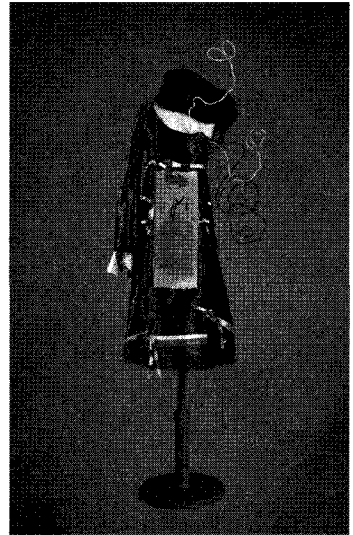
	디자인①	디자인②	디자인③
제목	清香(청향) 깨끗하고 맑은 향기	星亮(성량) 밝게 빛나는 별	晴嵐(청람) 화창한 날의 아지랑이
아이템	원피스 드레스 볼레로 진 코르셋	원피스 드레스 베일 코사지	원피스 드레스 실크스크린 디테일 스카프
소재	실크 진 벨벳 동양자수	실크 금박	실크 비즈
디자인 포인트	동양자수와 진의 결합 + 이질적인 소재의 믹스매치	금박을 활용한 황실의 권위 상징	조형성의 강조 + 실크스크린 디테일 및 비즈 리터치



〈그림 16〉 디자인① 清香(청향)



〈그림 17〉 디자인② 星亮(성량)



〈그림 18〉 디자인③ 晴嵐(청람)

2) 星亮(성량)

‘밝게 빛나는 별’의 의미를 내포한 본 작품은 금박을 활용하여 황실의 권위 상징을 그 특징으로 전개하였다. 신부의 형상을 타겟으로 한 베일은 짧은 황태자비의 단아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부각시켜주는 아이টে็ม으로 성량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3) 晴嵐(청람)

‘화창한 날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한 시각적인 의미’를 내포한 본 작품은 그 실루엣에서도 봄날의 아지랑이와 같은 조형미를 느낄 수 있다. 미인도의 실크스크린 디테일 위에 새로운 미의 형식을 추구하는 리터치 효과를 주어 고정적인 미의 개념이 아닌 바뀌어 가는 형상의 트렌드를 표출하며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V. 결론

드라마 「궁」은 대중매체를 통해 여주인공인 황태자비를 중심으로 미적가치가 높은 다양한 퓨전 의상을 발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퓨전’이라는 한 현상을 각인시키며 대중들에게 다가온 영상물로 평

가되는 작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를 지닌 드라마 「궁」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 의상에 관한 고찰을 위해 퓨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여주인공 황태자비의 의상을 캡처 하여 퓨전 스타일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를 위해 도출해낸 퓨전의 요소를 도입한 세 별의 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퓨전 현상은 이미 대중들에게 밀접하게 자리매김 되어진 하나의 문화 코드이며, 이는 패션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여주인공 퓨전 스타일 의상 분석을 통해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인 실루엣, 소재 및 색상, 액세서리로 구분지어 고찰 한 결과 실루엣에서는 한복선이 만들어 내는 배래선, 치마폭이 만들어 내는 인(人)을 이루는 직선 등 한국적인 선의 활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소재 및 색상에서는 전통 고급소재인 명주와 오방색을 기본으로 한 음양오행 색과 금박과의 퓨전을, 액세서리에서는 노리개를 이용한 코디네이션을 통해 퓨전적 요소를 표출하고 있었다.

셋째, 성스러운 구름을 뜻하는 ‘紫雲(자운)’을 전

체 컨셉으로 하여 파티 및 연회를 위한 디자인 개발의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퓨전적 요소들이 모티브로 활용되어 새로운 하나의 스타일이 창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학문적 고찰만이 아닌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퓨전 패션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지침서가 되기를 고대한다. 또한 한류의 문화가 세계화로 뻗어 나아가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춰 다양한 영상물에 관한 의상 분석 및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이 계속되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혼합주의(syncretism) : 퓨전은 둘 이상의 문화가 섞여 이전과 전혀 다른 제3의 문화를 일컫는 이종교배의 의미를 담은 혼성화, 혼합주의(Syncretism)로 표현되기도 한다.(이희승 (1994).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 4504.)
- 2) 하이브리드(hybrid) : 텔레비전·라디오 파위에 진공관과 트랜지스터·IC등을 혼용하여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이희승 (1994).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 4246.)
- 3) 크로스오버(cross-over) : 사전적 의미는 교차로, 교차점이라는 일반적 의미 외에 철도의 전선로, 생물학의 이전, 음악에서의 재즈와 록을 혼합한 형태를 뜻한다. (한국영 문학회, 전개서, p. 694.)
- 4) 강현주 (2002). 디자인에 나타난 퓨전현상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
- 5) 유수연 (2000). 디지털 시대의 퓨전문화와 퓨전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지, 25, p. 63.
- 6) 브리테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8 (1993). 서울: 한국브리테니커회사, p. 141.
- 7) 홍승찬 (2000). 퓨전의 시대에 생각하는 퓨전의 의미. 낭만음악, 12(4), p. 213.
- 8) 박수현 (2005).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퓨전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6.
- 9) 신성원 (1995). 깨지한 재즈 이야기. 서울: 솔바람, p. 7.
- 10) 김소라 (2003). 서울컬렉션에 나타난 퓨전스타일 연구-'01 S/S ~ '03 S/S 패션 디자이너 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2.
- 11) 최혜정 (2000).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 문화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
- 12)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가꾸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내면의 여성성을 긍정적으로 즐기는 현대 남성을 뜻한다. 1994년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크십슨이 한 일간지칼럼에서 여성적 취향의 남성들을 메트로섹슈얼로 표현한 것이 시초이다.(김학준 (2006). 현대시사용어사전, 서울: 동아일보사, pp. 207-208.)
- 13) 크로스섹슈얼(Cross-sexual) : 크로스섹슈얼은 메트로섹슈얼의 가꾸기 차원을 넘어서 여성들의 의상이나 머리 스타일, 악세서리 등을 하나의 패션 코드로 생각해 치장을 즐기는 남성을 뜻한다. (김학준 (2006). 현대시사용어사전, 서울: 동아일보사, p. 359.)
- 14) 위버섹슈얼(Ubersexual) : 위버섹슈얼은 거친 듯 부드러운 남자를 뜻한다. (김학준 (2006). 현대시사용어사전, 서울: 동아일보사, p. 153.)
- 15) 2006, 5. 3, 강해림 인터뷰 자료
- 16) 2006, 5. 30, 정희정 인터뷰 자료
- 17) 고려도경(高麗圖經) : 고려 인종 원년(1123)에, 중국 송나라 사신 서궁(徐兢)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바를 그림과 글로 적어 놓은 책.(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 233.)
- 18) 금탁(金鑼) : 쇠로 만든 추(錘)를 단 큰 방울.(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 506.)
- 19) 백사여의(白事如意) : 모든 일이 뜻대로 되다.(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p. 1441.)